

## 인천국제고등학교 김유찬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

1.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입장이 아닌 전세계적인 입장에서 식량위기 해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식량위기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됩니다. 첫째는 UN이나 국제기구들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아프리카, 남아시아 국가)들의 심각한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로 선진국들의 박애적 재정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각 나라 안에서 극빈자에 대한 식량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선진국이라도 10% 내외의 극빈자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터무니없이 적어 외국의 식량에 주로 의존해야 하는 나라들의 국가안보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로 전체 식량자급률(식량에너지자급률)이 35%이며, 곡물자급률이 21%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비상사태(전쟁, 경제제재, 전염병 팬데믹 등)가 발생해 외국의 식량이 한국에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3개월 이내에 국민의 대부분이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OECD는 한국을 식량안보 취약국으로 분류하여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2. 현재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식량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과연 긍정적인 영향은 없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은 바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으로 확대되자 세계의 주요 곡물수출국들이 자국의 곡물보유량을 늘리고 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인력공급이 차단되면서 세계 주요 식품가공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했고 물류대란으로 식량 수송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유엔 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급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식품가격 인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 세계 기아인구수는 팬데믹 이전(2019년)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값싼 식량을 외국에서 무제한 사올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3. 중국과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식량을 값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데 식량안보가 국가적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외국의 값싼 식량에 안주하여 우리의 농업 구조를 허약하게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비교우위 경제이론으로 무장한 무역자유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설치 이전부터 식량자급률 제고와 해외 곡물 수입선 확보 노력을 꾸준히 수행해 현재 일본의 곡물자급률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곡물자주율은 100%를 넘어 일본의 무역상들이 우리나라에 곡물을 팔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현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으로서 또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예견되는 국가 식량위기는 국내 식량생산 능력의 제고와 국제 곡물 유통라인의 확보를 통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된 식량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량의 손실/낭비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약 30%의 식량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수확 보관과정에서 주로 손실되며 잘사는 나라에서는 소비단계에서 대규모 낭비가 일어납니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 먹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식량의 1/3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대 각성이 필요합니다. 식량 손실/낭비는 생산에서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일어나므로 모든 국민이 식량낭비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무절제한 식량낭비 풍조를 바로잡아 2030년까지 식량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여 식량자급률을 50%로 높이기 위한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 필리핀은 과거 농업혁명을 이끌었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경시하였고 식량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수입을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의 효과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교수님의 입장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의 식량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자국 내의 식량생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식량자급률은 최소한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량생산을 늘리고 낭비를 줄이는 국가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을 대비한 식량안보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통일이 되는 해에는 100-150만 톤의 식량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를 대비한 통일미 비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형상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은 주로 남한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한의 식량생산능력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쌀이 남아돈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 요셉의 지혜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철호

**참고문헌**

식량전쟁, 이철호, 도서출판 식안연 (2012)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이철호 외 5인, 도서출판 식안연 (2012)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이철호 외 4인, 도서출판 식안연 (2014)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고재모 외 2인, 도서출판 식안연 (2017)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성명환 외 4인, 도서출판 식안연 (2018)

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이철호 외 4인, 도서출판 식안연 (2019)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박현진 외 5인, 도서출판 식안연 (2019)

국가비상시 식량안보계획, 이철호 외 5인, 도서출판 식안연 (2021)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 추진위원회 활동계획,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21)

1학년 3반 4조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한 V-log(채식 기록) 프로젝트



기획요약

전세계의 식량 문제가 사회적 구조와 인간의 탐욕, 부의 분배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고, 식량 불평등 문제를 역사적 배경, 도시화와 산업화, 세계적 추세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 지어 탐구하고 문제 양상을 파악한 뒤 전세계의 식량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기후변화, 불평등한 식량 분배 등으로 인해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식량의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목적에서 채식 챌린지(V-log)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채식 권장 활동을 조사하고, 식량 분배를 다룬 책을 읽었으며, 식량 안보에 대해 연구하는 교수님을 인터뷰 하였다.

기획팀장

10303 김예인

기획팀원

10308 유수민, 10313 전혜상,  
10315 최가은, 10318 김유찬,  
10320 윤준

기획내용

I. 기획 배경 및 목적

1. 기획 배경

세계에는 70억 인구의 두 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존재하지만 분배의 문제로 식량 불평등이 심각하다. 식량 불평등과 연계하여, 식량안보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위기에 직면한 인구가 발병 이전 대비 두 배 증가했다고 말한다. 기후변화의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까지 더해진 실정이다.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세계의 식량 안보가 위협 받고 있으며, 식량의 불평등한 분배에 인간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식량 불평등 문제의 경우, 소가 인간이 먹을 곡식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전세계의 평등한 식량 분배를 위해 채식을 장려하는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2. 기획 목적

- 가. 현재 식량 위기가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곡물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양이 고기, 유제품 생산 등을 위한 가축 사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채식을 장려함으로써 가축 생산에 사용되는 곡물의 양을 줄여 궁극적으로 식량 재분배를 통해 전세계적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
- 나. 육류 중심의 식습관 개선을 통해 영양소 보충을 할 수 있으며 축산업과 낙농업에서 오는 가스 배출이나 목장 확장을 방지하여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관점에서 채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그 효과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분석했다.
- 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채식을 장려하는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여 채식에 대해 정보가 없는 사람들을 돕고, 채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채식의 보편화는 곧 식량 위기에 대한 관심과 극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채식 참여를 제안한다.

II. 기획 과정

1. 현재 국내외 채식 권장 활동 조사

채식에 관한 챌린지를 진행하기 위해 채식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의 활동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UN에서는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행동 지침, 즉 CFA를 시행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인류의 식량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분야의 핵심 기구이며, 특히 최근의 국제 곡물 가격급등 이전부터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정치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계 식량 정상회의의 관련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IFAD는 개도국의 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는 UN전문기구로 1970년대 초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개최된 세계 식량회의(WFC, 1974년) 결의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개도국의 가난한 농민들이 더 높은 소득을 실현하고 식량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빈곤과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며,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촌과 관련된 최대 투자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채식과 식량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2. 도서 분석

장 지글러의 <왜 세계는 굶주리는가?>를 읽고 1분에 250명의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데, 그 중 197명이 제3세계국에 태어나고 바로 기아로 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제기구 WFP는 식량을 지원받지만 2/3만 긴급구호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 1/4는 부유국의 소들의 몫이다. 자연재해나 정치부패, 시장가격 조작도 식량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만 전쟁도 큰 원인이 된다. 농민들과 유목민들에게 지원되는 식량자금을 폭파시켜버리기도 하고, 농지를 황폐화시킨다. 기아를 악용하는 국제기업이 있는가 하면, 국제 테러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책을 통해 부유국들이 사치재로 쓰는 식량을 빈곤국에 분배하는 것으로 도래한 전세계적인 평화가 식량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교수님 인터뷰

우리 조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교수님이 우리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다. 첫 번째 질문은 식량 위기 해결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교수님은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UN이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각 나라 안에서 극빈자를 위한 논의 그리고 외국 식량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에서의 논의와 같은 3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셨다.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 19 사태에서 우리가 얻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수님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하셨다. 현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는 식량위기에 대해 조사하면서 수입을 추구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교수님께 이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교수님은 자국 내의 식량자급률은 최소한 50%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취하시진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에 관해 물어보았다. 앞으로 예견되는 국가 식량 위기는 국내 식량 생산 능력의 제고와 국제 곡물 유통라인의 확보를 통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된 식량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다. 또한, 교수님이 계시는 한국 식량안보연구재단은 식량낭비 줄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셨다.



III. 기획 구성

1. 미디어를 활용한 채식 전파

채식을 보편화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업로드를 채택하였다. 업로드할 영상은 채식의 긍정적인 효과와 팀원들의 실질적인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 아침에 샐러드를 먹는 모습을 촬영하여 채식이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그 후, 단순한 영상 만으로는 파급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챌린지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챌린지는 해시태그 # V-log, 베지터리언 로그, 베지터리언니즘, 채식 참 쉽다, 채식, 건강에 라진드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해시태그를 활용한 참여 활성화

단순한 공감과 대리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여러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에도 초점을 맞췄다. 브이로그 영상에 조사내용을 담아 사태의 양상을 전달하고, 채식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채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IV. 효과 및 전망

-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전세계적인 미디어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우리의 챌린지가 전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우리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챌린지가 아닌 전세계적인 챌린지가 될 것이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되고 채식으로 인한 식량 재분배 효과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챌린지를 직접 수행하면서 채식으로 인한 식량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육류 또는 유제품 생산을 위해 가축들에게 사용되던 곡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후 식량위기로 인한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된다.

● 참고문헌

- 장 지글러. (2016).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 이철호, 이숙중, 식품과학과 산업 44(3), 2011.9, 20-37(18 pages)
- 정연근 기자(2021.12.10.). 해외 식량 공급망은 안전한가, 내일신문